

주의 공헌 대축일

기도서 P. 237 C해

제1독서(이 사 60, 1-6)
제2독서(에 페 3, 2-3, 5-6)
복 음(마 태 2, 1-12)

숨 정 이

발행인 김 환 철
인쇄인 김 봉 희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 제13회 세계 평화의 날 메시지 (요약) □

眞理는 平和의 힘

-TRUTH, THE PEACE POWER OF PEACE

교 황 요 한 바 오 로 2 세

나의 메시지를 여러분 모두에게 보내며, 그 어느때보다 뒤흔들리고 위협을 당하는 평화의 체제를 내부에서부터 견고하게 안정시켜야겠다는 결연한 정신적 행동적 노력을 갖고 이 날을 거행하도록 초대하는 바입니다. 평화의 구체적인 이용해서 평화를 강화하는 일에 우리 모두 힘을 합칩시다. 평화의 첫째가는 구체적 추진력입니다. 왜냐하면 조용하고도 강력한 평화의 추진력을 이루는 것은 다름아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그 자체의 힘으로 일체의 장애를 물리치고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 非眞理가 전쟁의 원인이 된다.

1. 진리가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것은 사실이며 아무도 이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온갖 형태와 영역의 비진리(거짓말, 부분적이고 왜곡된 정보 전달, 편파적인 선전, 홍보수단의 조종 등)가 서로 열키고 실켜 전쟁의 원인이 된다는 것도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폭력은 거짓 가운데서 번창하고 또 거짓을 필요로 합니다. 폭력은 사실과는 전혀 무관한 것, 아니 오히려 사실과 상반된 구실을 내세워 세인의 이목 앞에 체면을 세우려고 합니다. 자기비와 견해가 같지 않다고 해서 그들에게 적(敵)이라는 딱지를 붙인대거나, 그들에게 완강한 적의를 보인다거나, 교묘하고도 끈질긴 선전으로 그들을 과격분자로 몰아세우든지나 함으로써 반대자들을 공격하고 침묵시키는 수법을 두고는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비진리의 또 다른 형태는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기 거부하는 사람들이나 사상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권리, 객관적으로도 정당할 뿐더러 결코 양도할 수 없는 이 권리를 인정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위협에서 자기를 보호하고 변호하는데 부심하는 사람들에게 억압적인 의도의 형태가 가해질 때에도 비진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협들은 국가내에서도 국가들 간에도 여전히 횡행하니 실로 개탄할 일입니다.

2. 이 온갖 비진리를 밀박치고, 이것들을 조장하며 이것들을 지지해 주는 것은 인간에 대한 그릇된 이념, 인간내면에 있는 추진력에 대한 그릇된 이념입니다. 첫째가는 거짓말, 근본을 이루는 허위는 인간을 믿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인간의 온갖 역량은 물론이요, 인간 내심에 있는 죄와 악으로부터 구

제발아야 할 필요성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 평화는 성실과 진리를 필요로 한다

3. 평화를 회복한다는 것은 우선 온갖 양상을 떠는 폭력 행위를 폭력 행위라고 골이 곧바로 부르는 것을 뜻합니다. 살인(殺人)은 그 이름 그대로 살인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살인은 살인입니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동기가 살인의 본질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동기들이 살인 행위 때문에 더 천박해지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중족과 연령과 위치가 무엇이든지간에 남녀 인간의 대량 학살(大量虐殺)도 그 이름 그대로 대량학살이라고 일컬어야 합니다. 고문(拷問)도 그 이름 그대로 고문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조전부르라고 온갖 壓迫과 압제(壓制)와 착취(搾取), 인간에 의한 인간의 압제와 착취, 국가에 의한 인간의 압제와 착취, 다른 국민에 의한 국민의 압제와 착취도 그 이름 그대로 압제요 착취라고 불러야 합니다.

4. 진리를 평화의 힘으로서 증진시킨다는 것은 우리부터가 비록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허위(虛偽)의 무기를 쓰지 않기 위해서 끈기있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허위는 어디서든지 교묘하게 기어 들어옵니다. 만일 성실(誠實)-자기 자신에 대한 진리-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우리는 인간에 대한 보다 교차원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고 또 발견하기 위해서 인내롭고 과감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앞서 말한 바 있거니와, 불성실과 의심과 의혹이 지배할 때에는 평화가 위협을 당하며 폭력은 이것을 악용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내심을 깊이 파헤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 있고 우리들 사이를 갈라놓는 분열(分裂)을 극복함으로써, 우리 신념을 강화할 여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념이란 인간의 근본 추진력들과 인간의 참 본성에 대한 인식이 인간으로 하여금 타인들에 대한 마음의 개방과 상호존경, 형제애와 평화로 지향하게 만들리라는 확신입니다.

□ 진리는 평화의 길을 비추어 준다.

5. 평화에 대한 강단이 평화의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 세계의 일부가 되어 있는 긴장과 불의와 분쟁에 눈을 감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평화의 인간은 이것들을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그는 진리를 존중하는 뜻에서 이것들을 그 이름 그대로 불려서 부릅니다. 그리고 그는 평화의

〈2면에 계속〉

(2) 숲 정 이

(1면에서 계속)

사정에 매우 길들여 있어서 평화와 일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보다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그는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 악과 불의의 실제 원인들을 규명하여 적절한 처방을 발견하도록 충동을 받습니다.

6. 진리는 우리가 우리의 반대자들 때문에 절망하도록 용인하지 않습니다. 진리에서 영감을 받는 평화의 인간은 자기의 반대자와 그가 빠져있다고 보는 오류(誤謬)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의 인간은 오류를 있는 정도 그대로만 보며 당사자의 이성과 마음과 양심에 호소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진리를 수긍하고 받아들이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그는 특유한 발언으로 불의(不義)를 고발(告發)하게 됩니다.

7. 무엇보다도 진리는 불의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두고 실망하지 말도록 우리에게 명분을 제공합니다. 진리는 우리가 불의의 희생자들이 절망하여 체념하거나 폭력에 호소하게 충동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고통받는 개인들이나 국민들이 내심에 간직하고 있는 평화의 위력을 진지하게 헤아려 보도록 우리를 고무합니다. 진리는 고통받는 이들이 자신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을 각성하게 함으로써, 압제의 세력에 대해 변혁을 조력하는 효과적인 압력을 행사할 용기와 힘을 그들에게 주리라고 믿습니다.

□ 진리는 평화의 수단들을 건설하게 만듭니다.

8. 국가생활과 국제생활에 있어서 인간답지 못한 상황에서 보다 인간적인 상황에 도달하는 길은 머나먼 길이이며, 여러 단계들을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폭력의 인간은 조속한 해결이 오리라는 화려한 전망을 내세워서 여론을 기만합니다. 그리고는 거짓말을 예사로 하면서 자기가 연약한 자유와 자신이 다짐한 중요가 왜 그렇게도 거둬 놓여지지만 하는지를 용하게 설명하려고 급급해 합니다.

성실하고 부단히 대화(對話)를 갖겠다는 작오가 없이는 평화가 없습니다. 진리는 또한 대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평화를 달성하는데 불가결한 수단인 이대화를 건설하게 만들어 줍니다.

9. 우리가 폭력에 호소하는 일을 제대로 배척하기 위해서는 용기있는 정치적 창안(創案)으로 폭력을 대신하기 위한 상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불의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들을 근절하는데 목적을 둔 정치적 창안으로 폭력 시위를 대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그리스도 신자들에게는 복음의 진리가 있다.

10.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은 개개인 모두와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과업입니다. 인간 각자에게는 마음과 이성이 있고 또 하느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과 누구나, 평화를 강화하는, 진실과 성실의 노력이 가능합니다. 나는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이 복음의 특별한 기여를 공동과업으로 삼아 단결하도록 초대하는 바입니다. 복음은 진리의 궁극 원천인, 즉 혈육을 취하신 하느님의 말씀께로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마지막 호소

11. 과연 여러분은 용서하고 화해할 작오가 서 있는지 반성해 봅시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적 정치적 책임 당



소망(所望)을 이루자!

1980년을 맞는 모든 한국인의 소망은 민주발전(民主發展)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를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어떤 여론조사에 의하면,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에 앞서 민주화(民主化)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72.8%로 집약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이, 정치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人權과 自由의 신장」(23.3%)이라는 것이다. 인권이 더욱 제약을 찾을 수 있는 「공정분배를 통한 사회정의 실현」(15.4%)과 「입법 및 사법의 독립」(12.8%)까지 하나로 묶어 본다면 「인권과 자유의 신장」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은 더욱 커진다. 더군다나 여론조사에 응한 대부분(89.4%)은 「우리 국민이 민주정치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거나 다소 있다」고 긍정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이 2천1백여명에 불과하지만, 이 조사가 그래도 믿음직한 연구진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특별히, 민주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정치인이라면, 정치인들의 새로운 자세가 더욱 요청된다. 그간 정치인들은 「가장 믿을 수 없는」 대상에서 가장 손꼽히고(30%) 있으니 더욱 그러하다. 국민의 바람을 똑바로 보아, 또다시 불신(不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자신들의 멸망은 물론, 국가의 장래를 그르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니까.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이 평화의 추진력은 眞理이다. 아무도 진리를 거역해서는 안된다.

숲 정 이 산책



국의 테두리 내에서 용서와 화해의 태도를 취합시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은 진리를 행하는 것이며 진리 또한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빛과 힘을 줄 것이며 세 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 생화·작중 화분·신부부케 전문·제대장식
유명장사 직접지도 꽃꽂이 회원모집
- ◇ 교우 여러분께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진 선 미 꽃 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0921

범 떠도(덕배)·이 마리아

희 소 식

우리나라에서 수입해 오던 칠면조가 가축, 부업, 화조식품용으로써 대량 생산되어 획기적인 선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의 연락 바랍니다.

특 징

노천사육이 가능하며 질병이 없으며 닭에 비해 성장율이 빠르며 조식동물로써 사료비가 40% 절감할 수 있음. 전북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내정부락

칠면조 사육장 요 셉

80년을 다지는 新年 交禮會와 平協 定期總會

—副主教 겸 事務處長에 김환철 신부 임명
—平協會長에 조성호, 副會長에 김병구·김후만 피선

1980년 평화의 날 신년 교례회가 지난 1월1일 오전 11시, 교구내 250여명의 사제·수도자·평신도가 모인 가운데 가톨릭 센터에서 있었다.

교구 평협 曹成浩 회장은 개회기도에서 「우리의 소망은 평화의 도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길은 탄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교구설정 50주년을 준비하는 뜻있는 새해에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 이어 사무처장 范錫圭 신부의 성경(요한 1,10~14) 봉독과, 주교님께 대한 단체인사가 있었다.

교구장이신 金在德 주교님은 6만 교구내 신자들과 그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빈다는 인사말씀에 이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평화의 메시지를 요약해서 소개하셨다.

김주교님은 「새시대를 맞는 우리의 자세는 평화의 추진력인 진리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 신뢰심을 심어야 합니다. 지난 한해는, 우리의 순교선조들이 겪었던 박해 이후의 가장 큰 어려움을 치루어낸 해였습니다. 시대적인 요청에 의한 사회참여의 어려움을 잘 이겨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현실에 바탕을 두어야 하겠으나, 금년은 교구설정 50주년을 앞두고 내적쇄신(內的刷新)을 바탕으로 한 복음선포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적인 현실이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내적쇄신에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진리안에서 결허한 자세로 일치를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본 주교의 부족을 잘 메꾸어주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봉사자로서의 주교의 판단력이 그르치지 않도록 항상 도와줄 것을 당부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회장이나 교구단위 단체장의 임명장 수여의 의미를 강조하셨다. 따라서 사도회장들은 더욱 교구적인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당부하시고, 주교의 임명장 수여가 본당 신부님과 관계가 호러점이 아니라 더욱 일치된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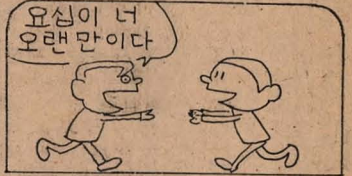
이어 39개 본당 사도회장과 10개 교구단위 액선단체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공로표창이 있었다. 공로표창을 받은 이들은 유완근(신태인), 박종옥(장수), 황사연(정읍), 이아네(팔마), 최갑철(화산), 김창수(대야), 박장춘(서학동), 조정만(둔율동), 김중현(용안), 유병환(한들), 하성균(임실)씨이다.

주교님은 또한 1월 1일자로 부주교 겸 사무처장에 金九詰(스페라노) 신부를 임명하셨다.

평화의 인사 나누기로 끝난 신년 교례회는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며 우정과 평화의 분위기를 한층 높게 했다. 신년 교례회 참가자들에게는 아주 쓸모가 큰 신자수첩이 주어졌다.

오후에는 교구 평협 제 5차 정기총회가 37개 본당 사도회장과 6개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79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회칙개정, 임원개선, 80년도 사업 및 예산확정으로 끝난 총회는 曹成浩씨를 새 회장으로 유임시키고 부회장으로 金炳球씨와 金厚滿씨를 뽑았다.

요십이 (336) 김병오



□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선사합니다□
송 옥 의 상 실
최 춘 자(로사리오)
(이 시 계 점 옆)
전화 ② 6 2 1 9

□ 개업안내
테이프·레코드·카세트·DP & E
숲 정 이 음악사

홍지서립 남쪽 편
전 대 수(베드로)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교우님들의 건강관리 상담
세 종 당 한 약 방

김 남 수(벨라도)
전주시 풍남동 3가 35의9
(은행나무 사거리)
전 화 ② 2 2 7 7

표구, 서화, 병풍, 수예, 방석, 보로
문 화 양 행

오 중 원(아오스딩)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 ②3170
☆교우님들 자주 들리세요

□ 타을, 보자기, 족석 인쇄
※ 교우여러분들의 협조바랍니다.

송 월 타 을
(남문영업부)
전주시 전동 3가 9
(전북은행 남부지점)
전화 ② 2849·② 5612
업 판 설(베드로)

*교우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시 보 당 금 방
(금·은·보석·각국 시계)
주 이 창 수(바오로)
전주 남문 옆
전화 ② 8 1 8 8 (자 ②0369)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사제서품식...11일<금> 오전 11시, 중앙성당에서 ※ 뜨거운 기도와 많은 축하
사제품...김희남(베드로-중앙)
부제품...서광석(요셉-중앙), 박인호(베드로-서울 해방촌), 유영도(베네딕토-중앙)
 2. 공소 지도자 피정...8일<화>~9일<수>, 가톨릭 센터에서, 1지구와 2지구 공소
① 대상...교장, 김제, 부안, 수주, 신태인, 원평, 정읍, 대야, 문물동, 오룡동, 월명동, 팔마
② 참가비...군산 시내-1인당 3,500원, 원평-2,000원, 기타-3,000원
 3. 본당 사무장, 재산관리 위원 교육...10일<목>~12일<토>
 4. 대신학교 입학원서...교구청에서 9일까지 접수(교구청에 원서 있음), 12일<토> 오후 2시 전달
 5. 꾸르실로 교육 참가 희망자 접수...12일<토> 오후 5시까지, 참가비 15,000원
※ 여성 꾸르실로(1월 14<월>~17<목>), 남성 꾸르실로(1월 19<토>~22일<화>)
- ☐ 교구 인사(80년 1월 1일자)-부주교 겸 사무처장...김환철(스테파노)신부
☐ 군인들 위한 묵주 성금...월명동 천주교회 30개 ☐ 정의 평화를 위한 성금...삼례 1만원

(중앙)

전화 ③3651
3874주임 신부 서 웅 복
보좌 신부 왕 수 해
보좌 신부 정 태
사도 회장 김 병 구

1. 프란치스코 3회 : 6일<일> 오후 1시30분
 2. 상지회 월례회 : 9일<수> 오후 6시30분 (중앙성당)
 3. 사제 서품식 : 11일<금> 오전 11시
 4. 새 신부 첫미사 : 12일<토> 오전 10시30분
 5. 사도회 고문 : 이복석, 강재희, 김정기 (전북동), 장남수, 김정기, 이상범, 오재희
 6. 성령 기도회 : 매주 토요일 저녁 7시30분
 7. 매일 축일표 구입하세요 (사무실)
 8. 영세사진 찾아 가세요 (사무실)
 9. Gen 미사 : 10일<목> 저녁 7시30분
 10. 대화의 광장 : 6일<일> 오후 2시 교리실
 11. 80년도 교무금 신입합시다.
- ※ 여자 Gen 모임 : 13일<일> 오후 2시 성심여고 강당
☐ 지난주 봉헌금 : 294,142원

(노충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김 정 원
보좌 신부 나 준 근
사도 회장 박 준 근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저녁 미사 후
상임 위원들께서는 꼭 참석 하세요
 2. 자도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자도님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3. 애령회 정기총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회원 여러분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4. 미사 전 성가연습 : 매주 공식미사 전에 성가 연습을 합니다. 미사시간 10분 전에 나오세요
- ☐ 지난주 봉헌금 : 197,040원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전 종 복
사도 회장 유 제 상

- ☆ 새해에 모든 가정에서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주임신부
1. 젊은이들 모임 : (25세-39세) 저녁 6시 사무실에서
 2. 중학생 동계 등반 : 7일 9시 출발. 모악산-금산사경유 (본당내 중·고생에 한함. 접수-중학생 지도자)
 3. 80년도 교무금 자진 신입합시다. 30%인상
 4. 새구역·반 편성에 구역장님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보좌신부님 영명축일에 협조와 수고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5. 적극 참여하는 본당의 평신도로서 80년을 알차게 꾸려 나갑시다.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 종 택
보좌 신부 박 성 팔
사도 회장 조 성 호

1. 주일학교 동계 특별교리 : 7일-12일 오전 10시-12시
빠짐없이 보내주세요.
2. 학생회 정기총회 : 오늘 9시미사후(회장 및 임원선출)
3. 가을 판공성사 : 아직 못 보신분들은 매 미사 전후에 줄입니다.
4. 가을 판공시험 문제 답안지 오늘까지 내주시기 바람
5. 사무장 및 재산관리위원 교육 : 11-12일
4. 80년도 봉헌금 봉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79년도 봉헌금 미수는 속히 완납 바랍니다.

7. 병자 불성체 : (15일) 병자 가정에서는 13일까지 사무실에 연락 바람
 8. 여성 꾸르실로 : 14-17일 원하시는분 사무실에 접수
남성 꾸르실로 : 19-22일 원하시는분 사무실에 접수
- ☐ 지난주 봉헌금 : 270,161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 현 택
사도 회장 한 형 수

1. 사도회 월례회 : 공식 미사후(부차장 참석 바람)
 2. 감사 : 성탄절을 맞이하여 불우 이웃들에게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3. 헌금 : 애령회 헌금 협조를 바랍니다
 4. 79년도 운영결산 : 9일
 5. 사도회 자체감사 : 12일
 6. 봉헌금은 새 봉투로
 7. 신년예산 및 결산보고 : 13일
 8. 교무금 신입 : 미신입자 신입을 바랍니다
- ☐ 지난주 봉헌금 : 86,561원

(순정미)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이 강 노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유지원 원아모집 : 1월 7일-12일 (선착순 접수)
 3. 1월 14일 여성 꾸르실로 참가자는 1월 13일까지 접수 바랍니다
 4. 79년도 밀린 봉헌금 속히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축비 내주신 분
이상식 유준웅(각30만원), 윤석도 유준웅(각10만원)
박병렬(20만원), 최전재(5만원), 유재환(3만원),
홍종석(30만원)
- ☐ 지난주 봉헌금 : 239,500원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 병 기
보좌 신부 김 기 중
사도 회장 유 석 중

1. 사도회 : 공식미사 후
 2. 유아세례 : 9시 미사후
 3. 교무금 신입을 속히 해 주십시오
 4. 판공성사 못 보신분은 빠른 시일내에 보시기 바람
 5. 독지가 : 김옥례(미사주 1년분) 감사합니다
- ☐ 지난주 봉헌금 : 335,935원
신정감사 특별헌금 : 112,115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신부 김 영 일
사도회장 채 수 현

1. 사도회 확대회의 : 사도회 임원 전원과 각 단체장님
꼭 참석 하세요
 2. 성당 준공 허가에 힘쓰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3. 80년도 사업 계획서를 각 분과에서는 사도회때 제출
해 주세요
- ☐ 지난주 봉헌금 : 75,470원 어린이 헌금 : 2,820원
교무금 : 48,200원

내 적 새 신의 해

친애하는 교구내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동안 밝은 지혜로 민족의 어려운 시련을 극복했고 예언자적인 용기로 교회의 무거운 역경을 감수했습니다. 나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해에 여러분이 베풀어주신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에 마음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 한 해도 이 명과 여러분 모두를 하느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금년은 내년엔 맞이할 교구설정 50주년을 준비하는 해로서 우리는 그 어느때 보다도 교구의 일치를 더욱 굳건히 하고 각자의 사명감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반성은 단례적인 반성이 아니라 교구의 새 역사를 정립하기 위한 새로운 반성이요, 우리의 계획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획기적인 작업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과거 역사를 재검토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양식을 후퇴시키거나 과거를 그저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살아온 신앙의 증거자의 교회의 순수한 모습을 되찾고 구체적인 한 나라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구세사를 배우며 새로운 역사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수반하여 신앙의 눈과 마음과 정신이 쇠신되지 않는 한 진정한 자각을 가질 수 없고 새로운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항상 우리자신이 정화되기 위해 회개와 쇠신을 계속하는 교회이어야 함을 통감하면서 금년 목표를 「내적 쇠신의 해」로 설정하

였습니다.

1931년 전주교구가 한국최초의 방인 교구로 설정된 것은 단순히 교세를 크게 확장시켰다고 인정 받아서가 아니라 그보다도 한국교회의 기적적인 성장을 결산해 주는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천주교회가 1831년 북정교구로 부터 독립하여 조선교구로 창설된 100주년을 정축하는 기념사업으로 전주교구가 설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선물이 아니라 우리교구 선조들이 소유한 성숙하고 각별한 신앙심의 덕분이었습니다.

전주교구가 설정되기까지 이 고장 교회의 구성과 분포의 특색은 순교자와 순교자의 후예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거듭할 수록 이 고장의 산천 구석구석은 전국 각처에서 끌려온 신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교우촌이라는 새로운 존과 공동체를 이땅에 남겨 놓았고 지금도 그 분위기의 일부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실로 이 고장은 한국적 출애굽이 낳은 가나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을 보존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안식처를 찾은 것이며, 그들에게는 오직 신앙만이 절약의 체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그들의 모든것을 공동소유로 내어 놓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한마음이 되어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였으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사도 2, 44-47) 고 한 복음적 공동생활을 생생하게 구현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었습니다.

선조들의 신앙기초는 화려한 의식이나, 심오한 신학적 교리체계보다, 복음을 읽고 묵상하면서 자기생활을 조명하는 복음의 생활화에 있었읍니다. 선조들은 이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도 토착화된 말씀으로 생생하게 전하였읍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고장 교회에 사제가 상주하기 까지 다른 지방에 비해 장구한 생활동안 목자가 없는 중에도 꾸준한 교세의 증거가 있었던 것은 많은 수의 출중한 평신도 봉사자들을 기졌던 덕분이었읍니다.

이 고장에 교회가 설립되면서 사제와 수도자와 평신도는 혼연일체가되어 제도로써 보다는 형제애로서 서로만났고 의무감 보다는 복음적인 기쁨과 자발적인 노력에서 교회의 유지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였읍니다. 특히 복음 정신에 투철한 사제와 수도자의 사심없는 생활과 지부적(慈父的)인 모습은 어려운 시대를 밝히는 한 가닥의 햇불이었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심은 사회참여 역시 타산적이고 사업적이기보다는 인간회복을 위한 순수한 것이었읍니다.

이에 우리는 교구설립 50 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의 선구적 교구로서의 긍지를 보존해 나가야 할 중대한 사명감을 더욱 절감합니다.

우리는 선조들이 물려준 신앙의 유산 앞에 우리의 신앙을 반성하면서 더욱 복음적이고 더욱 순수한 모습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야 하겠읍니다. 그리하여 새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교회상을 정립하고 새로운 선교자세를 모색하는 준비작업에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해야 하겠읍니다.

이러한 기초작업은 책상위의 연구나 행정위주의 계획이 아니라 현안과제를 구체적으로 필요로하는 모든 신자들의 중의를 모음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교구 및 본당의 모든 협의회, 위원회 단체등 사목과 교육을 위한 여러 기구들의 활성화가 시급히 요청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사명의 성취는 카톨릭 교회의 본래적 정신으로 돌아가 편협한 자기본당 이의 위주의 신앙자세를 지양하지 않고서는 그 어느 것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되바침하기 위하여 사제와 수제자들의 자질향상은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연례적인 회집이나 세미나 외에도 자발적인 영성구체과 연구모임을 통해서 보다 친숙한 복음적 목자상(像)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주교구사의 특색 중 하나인 적극적인 평신도 활동을 회복하기 위해서 평신도의 위치가 더욱 강조되고 적극적인 육성과 참여의 폭이 넓어져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짐하는 반성과 과제는 모두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마르 1, 15) 하신 복음의 신앙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신앙은 하느님의 뜻을 철저히 수행할 자세를 표현하는 내적 쇄신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교구내 모든 하느님 백성 여러분

우리의 각오가 아무리 태산같고 의욕이 아무리 장엄하고 우리의 말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을 힘입어 나는 무슨 일든지

할 수 있다” (필립 4, 13-14) 고, 한 확고한 믿음만 이 풍요
로운 결실을 맺게 해 줄 것입니다.

1980년 1월 1일

천주교 전주교구장 金在德 주교

'80년도 교구 사목 지침

1. 기본 사목 방침 (방향, 목표)

- 1) 내직 쇄신과 복음의 생활화를 위한 심신교육 강화와 적극적인 선교 대책을 모색, 저변 및 계층별 교육, 신자화에 박차를 가한다.
- 2) 제 단체의 활성화와 조직 사도직 활동 강화를 위해 교구 기구 및 사목, 관리행정 통괄 체제를 확립한다.
- 3)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결성, 지교구적인 계몽과 모금운동 전개 및 단계적 작업을 착수한다.

2. 일반 지침

- 1) 사목교서와 지침을 연구하고 전신자들에게 교육, 주지시킬 것.
- 2) 금년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고취시키고 각 본당 기관 단체별로 구체적인 활동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할 것.
- 3) 이에 따른 계획과 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펴히 보고 할 것.

① 활동 및 사업계획서 제출 : 1980년 1월 10일까지

② 평가 및 결과 보고서 제출 (별도 지시 양식에 의거) : 년3회

보고 (80년 5월 10일, 9월 10일, 81년 1월 10일)

3. 세부지침 (교육 및 행사)

1) 내적태신과 복음의 생활화

- ① 전신자 및 단체 계층별 피정 묵상회, 기도회, 성지순례 실시
- ② 전신자 성경, 성가집 보급 및 연구 교육과 발표대회 개최
- ③ 전례 (미사, 성사, 기도) 생활의 적극지도와 100% 참여운동 전개
- ④ 가정방문 및 형제돕기, 봉사활동 적극 추진

2) 제 단체의 활성화와 조직 사도적 활동강화

- ① 교구 제 협의회, 위원회 단체의 보강 및 연구활동 강화
- ② 교육, 풍스 사목 연구위원회의 교육 및 자료연구, 제공
- ③ 지도자 교육 및 단체 계층별 특별연수와 조직 훈련회 개최
- ④ 전신자 1인 1단체 가입 (성별, 계층별, 직업별 등) 운동전개
- ⑤ 지구, 본당, 단체간 연구 교류 및 단합 친목대회 개최
- ⑥ 각 본당 및 양 학교의 자체교육 강화

3) 50주년 기념사업 추진

- ①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교구) 결성 계획 및 대책수립
- ② 교구사 편찬 성지일출 및 개발사업 단계적 착수

- ③ 기림관 (성당) 건립을 위한 계몽 모금운동 전개
- ④ 수교자 현양대회 및 시복 시성을 위한 기도와 강연회 실시
- ⑤ 각종자료 발굴, 확인, 정리 및 홍보기구 활용 보급
- ⑥ 각 본당, 기관, 단체 단위 기념행사 계획 연구

4. 행정 사무 지침

- 1) 통일양식에 의한 사목 재정상 월말보고 실시
- 2) 본당 및 단체의 자체 사무감사 (년, 3회) 실시 보고,
- 3) 교구 사무처, 사목국, 관리국의 수시 본당 및 단체 방문 사목운영 협의
- 4) 사목 및 관리의 제 규정과 지침 작성 시달 및 시행
- 5) 제문서의 확인, 보관, 정리 완료 (점결)
- 6) 본당 확인지도는 별도계획에 의해 실시